

돌아 보기

: 인물탐방

적극적인 소통과 관심으로 맺어진 안전의 결실

울산 롯데정밀화학
안전방재팀 김수미 보건관리자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다뤄지는 만큼 화학 회사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렇게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현장에서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보건관리자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김수미 보건관리자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현장 곳곳을 누빈다.

글 손은경 사진 김재이



+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련한 관리자

롯데정밀화학은 1964년 창립 이래 한국 화학 산업 발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왔다. 화학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일반화학 사업에서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 대표 정밀화학 전문기업으로 우뚝 섰다. 케미칼, 그린소재를 포함해 울산사업장에서만 20여 개의 품목을 취급한다. 화학물질제조업이라는 특성상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 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사내 안전방재팀 소속 직원들은 현장을 누비며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둔다. 설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한쪽에는 언제나 이들이 있다. 특히 안전방재팀 소속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을 치료

하고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모든 일들을 해내고 있다. 사내 보건관리자는 김수미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이들은 많은 인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일당백의 역할을 해낸다.

울산 롯데정밀화학에서 2003년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김수미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가 현장을 아는 만큼 직원들이 건강해진다’는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보건관리자는 현장을 모르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작업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업무를 하는지 알아야 하죠. 특히나 현장은 끊임없이 변하는 만큼 발로 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김수미 보건관리자의
안전한 작업현장 만들기 1문 1답!

Q 화학물질 보건관리 시 어떤 점을 우선순위로 두고 관리하시나요?

A 물질의 특성을 우선시해서 관리합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휘발성의 정도를 중점적으로 휘발성이 높은 물질은 흡입 독성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칼리류는 경피독성 관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Q 작업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A 우선 작업 현장에서 얼굴을 자주 비쳤습니다. 작업자 옆에 가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많이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롯데정밀화학이 바라는 인재상 중 하나가 동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직원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Q 보건관리자로 업무 시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면 좋을까요?

A 당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제적인 보건관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통,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까다로운 요구사항은 많지 않다고 하다. 이를테면 ‘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운전하는데,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작업하기 불편하다’ 등과 같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쉬운 애로사항이 주를 이룬다. “얼마 전, 작업장 주변에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작업자들이 안팎으로 드나들기 편하도록 문을 열어 놓았더라고요. 소음 크기를 측정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소음 규제치인 90dB이 나왔었죠. 공학적인 개선도 검토하겠지만, 우선 작업장에 문을 닫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주변에서 소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소음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바라는 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편이에요.”

김수미 보건관리자는 형식적인 관례에서 벗어나 작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롯데정밀화학은 ‘무재해·무공해·무질병 3無 사업장 달성’이라는 비전

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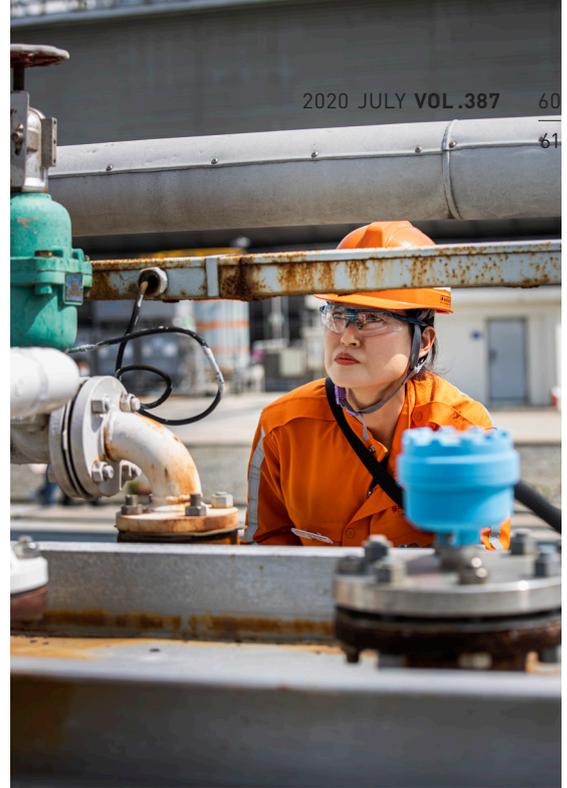
그렇다면 김수미 보건관리자가 생각하는 보건관리자의 덕목은 무엇일까? 바로 ‘소통’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작업자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사실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안은 작업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아야 해요. 작업자들이 먼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때 감사하고요. 작업자들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일하는 환경을 바꾸고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관리자 간 교류의 장 필요해

김수미 보건관리자의 올해 목표는 작업별 현장에 맞게 안전·보건 기준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작업 현장에 나가보면 업무상의 이유로 작업복·보호구 착용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작업자들도 적잖다고 한다.

“작업 현장이 다 다르고 작업자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정된 모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어려워요. 기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면서 작업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 기준을 다듬어 나가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이를테면 안경을 착용한 작업자는 보안경(도수가 없는 안경)을 겹쳐서 쓰면 불편하니까 쓰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작업자에게는 도수가 있는 보안경을 맞춤 제작해 지급하는 거죠. 지금도 현장 작업자들과 인터뷰하며 현실적인 안전·보건 기준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수미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한 업계서 일하고 있는 여러 보건관리자와 공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보건관리자 간에 업무 공유의 장이 없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종 현안을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나눠봤으면 합니다. 기업마다 문화가 다르므로 서로의 업장에 방문해서 보건관리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파악하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각자의 역량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현장을 방문하는 김수미 보건관리자. 그의 값진 노력이 롯데정밀화학의 안전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

